

명상과 삶을 위한 근본 원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여성을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며 덕망있는 생활을 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는 예언자의 말씀

오늘 저녁 이처럼 교회의 신권 소유자들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온 세상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최근 수많은 교회의 자매들이 교회 여성을 위한 특별 모임을 위해 세계 여러 곳에 모였던 일은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내나 누이 또는 어머니와 딸들에게서 이 모임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임을 가능케 해준 기술의 발달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성을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그 큰 행사에 이어 나는 아들로서, 오빠로서 혹은 아버지나 남편으로서의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의 자매와 함께 봉사할 때 여러분은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체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딤후 5:1-2)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는 대부분의 신권 소유자가 그렇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늙은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누이에게 하듯 “일체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한 바울의 말씀은 대

단히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흔히 무시하거나 욕망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행동과 그 관계를 세상 사람과는 달리 정립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내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벧전 3:7참조) 그것은 내게 있어 다른 사람보다 우리의 아내와 어머니, 자매와 딸에게 더욱 예절있게 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딤후 5:8)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돌보라는 말을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정서적인, 즉 사랑으로 지켜 주는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아내는... 남편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교성 83:2)라고 하셨을 때 나는 그 말씀이 식량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염려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하셨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리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궁핍한” 사람은 식량만이 아니라 우정과 사랑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우리 말일성도 여성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 주고 염려해 주어야 할 일을 게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궁핍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부엌은 음식으로 가득채워질 수 있지만 우리의 자매는 애정과 인정의 결핍으로 굶어 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집안 내의 자매들이 우리를 돕고 있듯이 우리도 그들의 교회 부름을 지지하고 도와 줍시다. 우리가 그들을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들이 일을 잘 해 낸다고 해서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가족 각자에 대한 칭찬과 감사로 가득차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를 소홀히 할 정도로 신권 소유자를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우리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세기 1:20, 29-31)

지난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나는 아리조나에서 자랄 적에 알았던 “작은 새를 죽이지 마세요”하는 노래 가사를 읽어 드렸습니다. 나는 내 포태의 아이들이 새총으로 많은 새를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등 협회와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와 숲 속에서

온 여름 동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를 죽이지 말아라”

(데저렛 노래, 1909년 163장)

그때 나는 온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 하면서 무언가 이것 이상의 것을 말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 세상 어디에나 아름다운 것들과 예쁜 노래를 부르는 작은 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께서 이러한 새들과 야생 동물의 보호자였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스미스 대관장께서 와사취 산 근처

에 있는 동안 언덕과 숲에 있는 동물들과 친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다음과 같은 4절의 시를 쓰고 그 뒤에는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그는 다람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높은 산에 사는

작은 다람쥐

우리에게 옥수수를 달라 하곤

안녕하며 가버리네

다음은 박쥐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밤에만 날아 다니는

작은 박쥐

벌레와 모기를 잡아 먹지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동물이야

다음은 사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두막에 찾아 오는

작은 사슴

우리가 주는 소금을 활아 먹고

산을 돌아다니네

다음은 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작은 새는 하루 중일

우리를 위해 노래하네

추운 겨울이 오면

멀리 가버리네

나는 불필요하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예언자가 표현한 동정에 의해 감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부와 인류에게 해로운 새라 하더라도 무죄한 새를 죽이는 것은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것은 악한 짓일 뿐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원리는 조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동물을 주셨다는 성구를 읽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짐승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

쳤다고 믿습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옐로우 스트oun 국립 공원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호수와 강에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노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그 새들은 마치 훈련받은 새들처럼 사람이 곁에 다가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길가에서 가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슴의 떼를 보았습니다. 그때 나의 가슴에는 어떤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시기에, 즉 아무도 해하고 괴롭히는 이 없는, 특히 시온의 주민 가운데 있을 평화와 기쁨인 것 같았습니다.

이 새들이 사람이 거하는 다른 곳을 찾아간다면 분명히 쉽게 붙잡힐 것입니다. 또한 사슴과 영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짐승들이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이 공원을 벗어난다면 분명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잡히고 말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동물을 죽이려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새를 사냥하고 죽이는 것을 스포츠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스포츠를 끝낸 뒤 얼마나 많이 무죄한 새를 죽였는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법적으로 사냥이 허락되는 시기에는 수십, 수백 마리를 사냥하여 죽입니다. 그때면 여러분은 이른 아침부터 마치 전쟁터에서 집전을 벌이기라도 한 듯 무죄한 새들이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총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사람이 식량으로 사용할 경우가 아니면 동물이나 새를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작은 새는 죽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의 피에 갈증을 느끼는 자들은 사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느 저명한 사람이 동물의 피를 흘리는 일에 몹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일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며 나는 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복음

교리, 5판, 솔트레이크시티, 메저렛 출판사, 1939년, 265—266페이지)

어느 시인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취하지 말아라.

모든 생명은 생존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갖고 있느니라.

나는 거기에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 식량과 인간에게 필요한 경우 이외에 동물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개척자가 대륙을 횡단하면서 자녀와 가족을 먹이기 위해 들소를 사냥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들소의 혀와 가죽만을 얻기 위해 생명을 희생시키고 식량이 되는 고기를 버리면서까지 사냥을 하는 사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환영 인파에 답례하는 킴블 대관장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질문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쳐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바라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엠바라스강을 건너 서쪽으로 약 1 마일 가량 떨어진 작은 개천가에 친막을 쳤습니다. 친막을 치려 할 때 형제들은 세 마리의 방울뱀을 발견하여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마시오. 하나님의 종까지 뱀에 대해 적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뱀이 그 적의를 버리겠습니까?’ 사람이 동물에 대한 적의를 버리고 살의를 버릴 때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잤다는 어린이는 독사의 굴에서 놀 것입니다. 형제들은 조심스럽게 막대기로 뱀을 잡아다 개울 건너에 갖다 버렸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여행을 하는 동안 뱀, 새는 물론 식량으로 삼기 전에는 동물들을 죽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교회사 2:71-2)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읽어 드리는 것을 듣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제목은 “청결”이라는 것인데 다른 총관리 역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답패설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즐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듣는 이가 웃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만해져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음답패설이 혀를 통해 이야기될 때
영혼 속에 잔적된 모든 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무지를 의치며

진정한 농을 좋아하는 고상한 소년들의
경멸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썩은 마음을 내 보일 때
자신을 옳게 내보인다고 생각합니까?
부모와 친구에게 부정직하게 대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언어를 조심하고
더욱 세련되도록 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하며 계명을 지키고 신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모임 처음에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께서 언급한 선교사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선교사의 수는 26,606 명이며 매주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선교사를 보낼 수가 없고 비자를 낼 수가 없으며 여권 발급을 받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감람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이들 국가의 문호를 활짝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지역 대표 모임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며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줄 국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나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는 매일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지도자와 접촉을 하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훌륭한 시민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가정에서 월요일 저녁에 어김없이 가정의 밤을 갖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업을 중요한 주제로 삼고 부모와 자녀가 차례로 이들 국가가 문을 열 수 있기를 기도하며 또한 교회의 젊은 남녀가 선교사로 나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열의를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에는 9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어제 약 50명의 중국인이 나를 찾아 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교회 사무실을 보여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국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대표 모임을 갖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주님의 영이 그들을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대회에 참석했던 중국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에서, 가족 기도에서 또는 공식상에서의 기도에서 이것을 주님께 간구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에 크게 감사를 드릴 것인지를 아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부터 모든 성도가 기도를 드릴 때 이 일을 꼭 간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나의 큰 관심사요, 기원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드린 모든 형제님들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간증의 말씀과 그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